

저탄소 축산 모델 고도화 탄력

장수군,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 국비 24억원 확보

장수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저탄소 축산 모델 고도화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장수군은 저탄소 축산 산업 분야 대표 모델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2026년부터 3년간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장수한우 탄소배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기반 스마트 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장수한우 탄소배출관리시스템(JCMS)’은 한우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측정·관리하고, 축산 농가별로 맞춤형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수군 저탄소 산업벨트 구축 구상도.

또한 구축된 ‘장수한우 탄소배출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내 75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와 교육, 서비스 확산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농가 단위의 사육 데이터와 탄소 감축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군 전체의 저탄소 축산 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은 장수군 축산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저탄소 한우 산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장수한우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을 대한민국 대표 축산 선도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군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한우 생산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축산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공공비축미 2087톤 매입

29일부터 신동진·해답쌀 품종

진안군은 오는 29일부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2,087톤(52,187포/40kg)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품종은 신동진과 해답쌀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일정은 △진안읍(11월 10, 14일), △용담면, 안천면(11월 12일), △동향면(11월 4일), △상전면, 정천면(11월 13일), △백운면(10월 29, 31일, 11월 4, 5일), △성수면(11월

3, 6, 7일), △미령면(11월 3일), △부귀면(11월 10일), △주천면(11월 6일)이며, 각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지정된 품종 외의 벼를 출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중간정산금은 2024년부터 1만원 인상된 4만원/40kg으로 매입 직후 지급되며 최종 정산은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유난히 더웠던 날씨와 잦은 기상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있을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으며, 무엇보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신동진1’ 생육평가회 가져

무주군이 벼 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15일에는 안성면 장거리 일원에서 ‘신동진1’ 생육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해당 품종의 생육 상태와 병해충 저항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신동진1’과 ‘참동진1’ 등 다른 품종과의 비교를 통해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

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6개 읍·면 이장, 그리고 지역 내 벼 재배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신동진1’의 주요 특성과 전신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을 선정하고 재배 기술 공유, 생산성과 품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벼 재배 안정화를 물론, 병해충 예방과 방제, 재배 기술 교육 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을빛으로 물든 진안 들녘

진안군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이 선명히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논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전하고 있다. 수확을 앞둔 들녘 풍경이 절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된다

무주군, 2026년도 금강수계 특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업 추진

무주군이 2026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무주를 대차리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무주군은 해당 시설을 복합공원·문화시설로 정비할 방침이다.

2026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공원장 내 분장실, 탈의실 등을 개선하고 공원 이용객에 비해 부족한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성용 무주군청 환경과장은 “무주군 내에서 활동하는 동호회 수는 2025년 기준, 102개 단체로 2017년 42개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이중 노래와 춤, 악기연주 등 공연을 위한 무대가 필요한 동아리도 45개나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연장은 동호회 등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설계

하고 공원에 어린이들이 이동 차량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마음껏 타고 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소이나루 공원이 무주를 대표하는 생태문화공원이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를 대차리 소이나루 공원은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 2017년에 조성된 곳으로, 서면마을 앞 남대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있어 야외 쉼터와 캠핑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금강수계기금을 활용해 생태문화공원장을 조성한 이후에는 마을축제 및 각종 행사 개최지로 이용되는 등 지역 내 공연·문화 활성화 기반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꽃차 전문가 양성

진안군은 15일 진안환경농업대학 교육생들이 민간자격증(꽃차소믈리에 2급) 과정을 통해 꽃차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다각화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총4회 동안 16시간에 걸쳐 운영됐다. 강의는 황혜경(하이다꽃차연구소) 강사가 이론 교육과 함께 꽃 재배, 가공, 티 블렌딩, 시음 등 실습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종합평가를 통과한 교육생 19명은 꽃차 소믈리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했으



며, 수료생들은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향후 지역 농가의 6차 산업화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까지 확보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장수군은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겨울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접종은 15일부터 진행된다.

또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64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은 27일부터 관내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유료 독감 예방접종은 장수군민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비 일부를 지원해 1만 원의 유료 접종비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방접종은 지역 위탁의료기관 7곳과 장수군보건의료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명단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1:1 진로·진학 컨설팅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진학 1:1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8일 첫 회기를 시작으로, 무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 5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1회기에서는 전문 진로컨설턴트와 학생들과 만나 진로 흥미 검사 및 진학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제시한다.

프로그램은 총 2회기로 구성, 2회기에서는 1차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로드맵 작성 및 진학 전략 수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